

## 여대생의 국적에 따른 캐주얼 셔츠 소재의 주관적 감각과 촉감 선호도 비교

### A Comparative Study on the Subjective Sensation and Tactile Preferences for Casual Shirt Fabrics Compared by the Nationality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멍위<sup>1</sup> · 최종명<sup>2\*</sup>  
Yu Meng<sup>1</sup> · Jongmyoung Choi<sup>2\*</sup>

#### Abstract

This study determines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n female university students and their Chinese counterparts residing in Korea by evaluating the subjective sensation and tactile preference in fabrics for casual shirts. Seven types of white casual shirt fabrics were selected as specimens from those available in spring and autumn shirt collection. The fabrics were made from various fibers (cotton 100%, polyester 100%, flax 100%, polyester 80%/cotton 20%, polyester 65%/cotton 35%, polyester 50%/cotton 45%/spandex 5%, and polyester 50%/modal 50%). Forty Korean and Chinese female university students subjectively assessed the subjective sensation of fabrics used for casual shirts. Participants were asked to observe the seven types of fabrics and complete the questionnaire. The subjective sensation to be assessed for white casual shirt fabrics was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four factors: smoothness, lightness, softness, and stretchiness. Subjective sensation factors showed parti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nationality. Korean female students evaluated cotton fabric as being light, whereas their Chinese counterparts evaluated the polyester/cotton/spandex blended fabric as light. Korean female students evaluated polyester/modal blended fabric as being stretchable. The tactile preference for fiber composition of the fabrics showed parti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nationality. Korean female students preferred cotton 80%/polyester 20% blended fabric, polyester 50%/cotton 45%/spandex 5% blended fabric, and flax 100% fabric. The subjective sensation of the fabrics had different effects on preferences by nationality. Smoothness and softness had positive effects on preferences for the fabrics of Korean students. However, smoothness, softness, and stretchiness had positive effects on the preferences of Chinese students. The subjective sensation and tactile preference for casual shirt fabrics showed a difference between Korean female students and their Chinese counterparts. Therefore, when planning casual shirt fabrics for female university students, it is necessary to reflect on these differences in subjective sensation and tactile preference.

**Key words:** Casual Shirts Fabrics, Subjective Sensation, Tactile Preferences, Nationality, University Female Students

#### 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한국인 여대생과 중국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캐주얼 셔츠 소재의 주관적인 감각과 선호도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춘추용 캐주얼 셔츠의 소재로 시판되는 소재 중에서 섬유조성이 상이한 7가지 종류의 흰색 셔츠 직물을 선정하였다. 캐주얼 셔츠 소재에 대한 주관적 감각 및 촉감 선호도의 평가자는 한국인 여대생과 중국인 여대생으로 40명이었다. 참가자들은 7종 소재를 관찰하고 나서 주관적인 감각과 촉감

※ 본 논문은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sup>1</sup> Yu Meng: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lothing & Costume Design, Guizhou Minzu University, China

<sup>2\*</sup> (교신저자) 최종명: 충북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E-mail: jmchoi@chungbuk.ac.kr / TEL: 043-261-2791

선호도에 대한 평가를 설문지를 사용하여 작성하였다. 캐주얼 셔츠 소재의 주관적 감각을 요인분석한 결과, 평활감, 경량감, 유연감, 신축감의 4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주관적 감각 요인은 소재의 섬유조성별 국적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인 여대생은 중국인 여대생 보다 면 100% 소재를 더 가볍다고 평가하였고, 폴리에스터 50%/모달 50% 소재와 P100 소재를 더 신축성이 있다고 평가하였으나, 중국인 여대생은 폴리에스터 50%/면 45%/스판덱스 5% 소재를 더 가볍다고 평가하였다. 캐주얼 셔츠 소재의 섬유조성별 촉감 선호도는 국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인 여대생은 중국인 여대생에 비해 면 80%/폴리에스터 20% 소재, 폴리에스터 50%/면 45%/스판덱스 5% 소재, 아마 100% 소재를 더 선호하였다. 한편, 캐주얼 셔츠 소재의 주관적 감각 요인이 촉감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은 국적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한국 여대생의 경우, 평활감과 유연감이 캐주얼 셔츠 소재의 촉감 선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중국인 여대생은 평활감, 유연감, 신축감이 촉감 선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캐주얼 셔츠 소재에 대한 주관적 감각 및 촉감 선호도는 한국인 여대생과 중국인 여대생간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여대생을 대상으로 캐주얼 셔츠 소재 기획시 이러한 감성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캐주얼 셔츠 소재, 주관적 감각, 촉감 선호도, 국적, 여대생

## 1. 서론

셔츠는 일반적으로 칼라와 소매가 달리고 앞여밈이 있는 상의를 말한다. 셔츠는 형태상 피부에 닿는 면적이 커서 다른 아이템보다 소재의 촉감이 착용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셔츠는 성과 연령에 관계없이 널리 착용되고 있는 아이템의 하나로 주 5일 근무에 따른 여가시간이 확대되면서 캐주얼한 걸옷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되었으며, 현재는 걸옷의 개념으로 다양한 색상과 무늬의 셔츠가 전개되고 있다(Kang, 2009). 셔츠는 착용 목적에 따라 정장 셔츠와 캐주얼 셔츠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대학생들은 캐주얼한 스타일의 셔츠를 즐겨 착용하고 있다.

요즘 소비자들은 감성 중심의 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구매하는 감성적 소비성향으로 변화하고 있다(Cui & Choi, 2011). 다시 말해서 환경친화적이고 감성을 중요시하는 소비 트렌드에 따라 패션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의류소재의 감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Kim et al., 2017). 이에 패션에서도 감성적 소비의 영향력이 점차 커짐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Nam et al., 2015), 특정 아이템과 타겟 소비자의 선호 감성을 반영한 의류소재 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의류제품에서 소재는 최종 제품의 용도와 형태를 결정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의류제품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부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의류업체에서 상품기획시 차별화 전략으로 소재를 활용하고 있으며, 소재의 촉감을 포함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 감성을

반영하고 있다(Bae & Kim, 2003; Kim & Park, 2015).

이처럼 의류소재의 주관적 감각은 소비자의 의류제품 구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Na et al., 2013), 세분화된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들의 소재에 대한 감성과 선호도에 대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몇몇 연구에서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셔츠 소재의 감각 이미지와 선호도 관련 연구(Choi & Kweon, 2006; Kim & Na, 2005; Kim & Na, 2002a)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인간의 감성은 선천적 본성과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과 민족을 타겟으로 하는 글로벌 패션환경을 고려해 볼 때, 국가와 민족에 대한 변인을 포함하여 감성과 선호도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Cho et al., 2000). 즉 의복은 특정 상황에서 자극에 의해 유발되어 지각되는 개인적 중요성이나 관심이 높은 감성 제품이므로 소재기획 단계에서 이러한 감성의 차이를 반영하여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디자인 형태가 일정한 셔츠의 경우, 소재가 셔츠의 감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소재의 주관적 감각과 선호도를 문화에 따라 차별화하여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과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비교한 연구로는 의복 색채와 패션 소재 선호도(Ahn et al., 2001; Enkhmaa & Lim, 2014; Jeong & Choi, 2011; Pan & Choi, 2012), 소재 촉감 비교(Cho et al., 2000; Yi & Cho, 2005), 색채 감성 비교(Choi & Kim, 2013; Ou et al. 2004) 등이 있으나, 셔츠라는 특정 아이템을 대상으로 소재에 대한 선호 감성을 국가간 비교하여 고찰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최근 중국의 경제는 미국에 이어 2위의 경제대국으

로 성장함에 따라(Li & Park, 2015),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어 중국은 글로벌적으로 마케터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Chen & Kim, 2017a). 또한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패션계에서도 중국인의 패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Chen & Kim, 2017b). 국내 해외 진출 브랜드 180여개 중 80% 정도가 중국에 몰려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중국 럭셔리 패션시장은 해외 유명 브랜드 파워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 대중시장은 중국내 의류기업과 일본, 유럽, 미국의 글로벌 SPA 패션 브랜드들이 장악하고 있어, 한국 패션브랜드들의 시장 경쟁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Li & Park, 2015). 따라서 중국의 패션시장에 진출한 기업이나 개척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패션상품기획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감성 차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패션시장을 겨냥한 셔츠제품 소재기획 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한국인 여자 대학생(한국인 여대생)과 중국인 여자 대학생(중국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춘추용 캐주얼 셔츠 7종 소재에 대한 주관적 감각을 평가시켜 국적에 따른 소재의 주관적 감각 요인과 촉감 선호도의 차이를 분석하고, 주관적 감각 요인이 촉감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국적에 따라 비교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의류소재의 주관적 감각

의류소재의 질감 즉 주관적 감각은 시각과 촉각 등을 통하여 감지되는 소재의 특성이다. 주관적 감각은 손으로 직접 만져서 느낄 수 있는 촉각적 질감과 직접적인 접촉 없이 눈으로 보고 느끼는 시각적 질감으로 구분된다(Seo, 2014). 그런데 의류소재의 시각적 질감에 대한 감성 평가와 촉각적 질감에 의한 감성 평가 결과는 거의 일치하였다고 하였으며(Kim, 2001), 방모직물의 주관적 감각을 촉각측정방법과 시각측정방법으로 평가한 결과, 촉각측정에 의한 평가가 시각측정에 의한 평가보다 좀 더 소극적이었으나 두 방법이 비슷한

추이를 나타내었다고 하였다(Ko et al., 2003).

의류소재의 주관적 감각은 형용사 어휘를 사용하여 평가되는데,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타샤(intarsia) 니트 소재와 자카드 니트 소재에 대한 주관적 질감은 보온감, 중량-유연감, 강인감의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이 중에서 보온감이 소비자들의 호감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Lim & Lee, 2012). 한복용 견직물 소재 6종의 주관적 촉감은 중량감/요철감, 강연감, 탄력/습윤감의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소재의 종류에 따른 촉감 특성은 차이를 보였다고 하였다(Lee, 2013). 남성 정장용 양모 직물의 주관적 감각은 평활감, 무게감, 밀도감, 강연감, 탄력감, 습윤감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는데, 평활감과 밀도감이 소재의 선호도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Bae & Kim, 2003), 투습방수소재의 주관적 촉감을 요인분석한 결과, 신축특성, 표면특성, 두께와 중량, 온냉감과 단단함, 구김성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남성보다 여성이 섬세하게 주관적 촉감을 평가하였다고 하였다(Rhu & Cho, 2002).

한편, 여름철 캐주얼 셔츠 소재에 대한 주관적 감각은 성에 따른 차이를 보여, 거칠다, 뻣뻣하다 등의 감각에 대해서는 여학생이 더 강하게 평가한 반면, 매끄럽다, 부드럽다, 폭신하다 등의 감각에 대해서는 남학생이 더 강하게 평가하여 감각 용어에 따라 성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Kim et al., 2012). 춘추용 셔츠 소재 7종의 촉감을 대학생 대상자로 평가한 결과에서는 소재의 조성섬유와 조직에 따라 주관적 감각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면 혼방 소재보다 면 100% 소재가 더 촉촉하고 얇으며 매끄럽다고 평가하였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보다 섬세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였는데, 특히 밀도와 구김에 대한 감각에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였다고 하였다(Choi & Kweon, 2006). 또한 한국과 미국 대학생이 평가한 한국 전통 견직물 6종에 대한 주관적 촉감은 매끄러움, 성금, 까실거림, 두꺼움에 대한 평가는 한국 대학생과 미국 대학생이 유사하였으나, 시원함과 유연함에 대한 평가는 차이를 보였으며(Yi & Cho, 2005), 의류용 직물 8종의 주관적 촉감을 한국과 미국 대학생이 평가한 결과, 딱딱함과 매끄러움에 대한 평가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한국 대학생은 미국 대학생보다 성금과 까실거림은 낮게, 시원함은 높게 평가하였다고 보고하여 한-미 문화적 차이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Cho et al., 2000).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서 소재의 주관적 감각은 섬유

조성, 조직, 색채 등 직물의 특성 뿐 아니라 평가대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즈음 글로벌 패션 환경시대에서 감성지향성 패션제품의 설계를 위해서는 의류소재에 대한 주관적 감각을 문화에 따라 차별화하여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여대생과 중국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셔츠 소재에 대한 주관적 감각을 촉각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 2.2. 의류소재의 선호도

최근 의류제품의 감성화 추구 경향으로 패션소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소재의 선호도를 결정하는 것은 시각적이고 촉각적인 감각으로서 의류제품의 구매와 직결되기 때문에 섬유 및 의류업체에서 소재의 촉감에 대한 평가 및 소재기획은 더욱 세분화, 구체화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Kim & Na, 2011).

춘하 남성용 슈트 소재의 경우, 시각적으로 매끄럽고 부드러우며 압축에 필요한 에너지가 적고 밀도가 성근 직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oh & Rhu, 2005), 무늬가 없는 9종의 다양한 블랙 패션 소재의 구조적 특성 및 색채 특성과 시촉각적 질감과의 상관성을 규명하고, 이들 특성이 촉감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블랙 패션 소재의 표면이 평활하고 시각적 부피감을 느끼며, 무게가 가볍고 부드러움을 느낄수록 그리고 두께가 얇고 청색 기미를 보이는 블랙 컬러일수록 대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Kim & Choi, 2011). 또한 워셔블 울과 울 편성물의 구성특성에 따른 주관적 질감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표면 요철감 요인은 니트웨어 중 조끼 선호도를 제외한 모든 선호도와와의 상관성에서 부적 상관을 나타냄으로써 표면 요철감이 느껴지는 소재일수록 선호도가 감소하였고, 유연하고 신축성이 좋을수록 카디건과 스웨터용으로 더 선호하였으며(Kim & Ryu, 2012), 대학생들은 봄·가을용 슬랙스 소재로 면 능직물을 선호하였고, 여름용 슬랙스로 린넨 평직물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얇은 직물을 선호하여 성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다(Kim & Na, 2002b). 한편, 한국과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여성 정장용 소재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국적과 연령에 따라 소재 선호도는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Ahn et al., 200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류소재의 종류, 구조적 특성, 표면특성이 촉감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임을 알 수 있으며, 소재의 주관적 촉감 평가를 통해 밝혀진 감성 요인이 소재 선호도와 관련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패션제품에 대한 만족도는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경험하는 의류소재의 주관적인 측면의 평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지속적으로 아이템별 소재의 선호 감각을 규명하고, 아울러 국가 간에 존재하는 감성 차이를 고려하여 의류제품의 소재기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문제

첫째, 캐주얼 셔츠 소재의 주관적 감각의 하위 요인을 파악한다.

둘째, 캐주얼 셔츠 소재에 대한 주관적 감각 요인은 평가자의 국적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셋째, 캐주얼 셔츠 소재의 촉감 선호도는 평가자의 국적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넷째, 캐주얼 셔츠의 주관적 감각 요인이 촉감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평가자의 국적에 따른 차이를 밝힌다.

### 3.2. 평가용 소재

평가용 소재는 시장조사를 통하여 춘추용 캐주얼 셔츠 소재로 시판되고 있는 소재 중에서 두께가 유사하면서 조성섬유와 조직이 다양한 소재 7종을 선정하였다. 평가자가 평가 시 색상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소재의 색상은 흰색으로 한정하였다. 평가용 캐주얼 셔츠 소재의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

### 3.3. 주관적 감각 및 촉감 선호도 평가

#### 3.3.1. 평가자

캐주얼 셔츠 소재에 대한 주관적 감각과 촉감 선호도를 평가한 사람은 시각과 촉각에 이상이 없는 한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인 여대생 20명과 중국인 여대생 20명으로 총 40명이었다. 직물에 대한 주관적 감각 평가 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섬세하고 민감하였다는 선행연구(Choi & Kweon, 2006; Rhu & Cho, 2002)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fabrics for casual shirts

No.	Specimen code	Fiber content (%)	Yarn (Nm)		Weave	Thickness (mm)	Weight (g/m <sup>2</sup> )	Density (warp×weft/in <sup>2</sup> )
			Warp	Weft				
1	C100	Cotton 100	107.5	105.8	Twill	0.22	101.0	164 × 120
2	C80P20	Cotton 80/Polyester 20	89.5	123.5	Twill	0.21	102.7	147 × 112
3	C65P35	Cotton 65/Polyester 35	70.8	79.8	Twill	0.24	129.0	145 × 98
4	P50C45S5	Polyester 50/Cotton 45/Spandex 5	67.4	75.7	Twill	0.29	171.7	160 × 96
5	P50M50	Polyester 50/Modal 50	87.0	81.4	Plain	0.24	122.0	136 × 92
6	P100	Polyester 100	66.2	57.6	Plain	0.23	126.0	115 × 79
7	F100	Flax 100	92.5	90.9	Plain	0.29	81.5	94 × 64

를 참고하여 평가자를 여학생으로 한정하였다.

### 3.3.2. 설문지

캐주얼 셔츠 소재의 주관적 감각 및 촉감 선호도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의류소재의 주관적 감각을 평가한 선행연구(Bae & Kim, 2003; Choi & Kweon, 2006; Kim & Na, 2011; Na et al., 2013)를 참고하여 주관적 감각을 평가하기 위한 형용사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형용사 중에서 본 연구목적에 맞게 형용사를 선정하여 예비조사를 통하여 최종 18개의 주관적 감각 평가 용어를 선정하였으며, 촉감 선호도를 묻는 2문항을 추가하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설문지는 한글과 중국어로 각각 작성하였다. 주관적 감각 및 선호도를 평가하는 형용사는 7점 척도의 의미미분척도로 구성하였다. 여기서 주관적 감각 형용사는 신축성 없는(-3)~신축성 있는(+3) 등으로 구성하였고, 촉감 선호도는 선호하지 않는(-3)~선호하는(+3) 등으로 구성하였다.

### 3.3.3. 평가방법

춘추용 캐주얼 셔츠 소재 7종의 주관적 감각 및 촉감 선호도를 평가하기 위한 소재의 크기는 15cm×15cm이었다(Fig. 1). 회색(N 5) 종이에 평가용 소재를 부착하

였으며, 평가자에게 무작위로 제시하였다. 평가에 앞서 연구자는 평가자에게 주관적 감각 및 선호도 평가 과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고 진행하였다.

평가자는 직접 시료를 손으로 만지면서 셔츠 소재에 대하여 시각 및 촉각으로 느낌을 자유롭게 관찰한 후 주관적 감각 및 선호도에 대하여 7점 의미미분척도를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과정에 대해서 연구자가 속한 대학의 IRB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승인번호 CBNU-201811-SB-0173).

## 3.4. 자료분석

캐주얼 셔츠 소재 7종의 주관적 감각 및 촉감 선호도를 평가한 자료는 SPSS 2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캐주얼 셔츠 소재의 주관적 감각을 평가한 자료는 주성분 분석과 Varimax회전 방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가자의 국적에 따른 주관적 감각 요인 및 촉감 선호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한편, 소재의 주관적 감각 요인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4. 결과 및 고찰

### 4.1. 캐주얼 셔츠 소재의 주관적 감각

#### 4.1.1. 요인분석 결과

춘추용 캐주얼 셔츠 소재의 주관적 감각의 하위 요인을 파악하고자 주성분 분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요인에 대한 단일 차원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값으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α>0.6). 평가용어 18개 용어 중에서 요인 부하량이 낮은 2개를 제외하고 16개



Fig. 1. The fabric sample for evaluation

Table 2. Factor analysis of subjective sensation of the fabrics for casual shirts

Factor	Description	Factor loading value	Eigen value	Cum. pct (%)	Cronbach's $\alpha$
Smoothness	Smooth	0.83	3.71	23.19	.86
	Rough (R)	0.79			
	Soft	0.73			
	Crepe (R)	0.73			
	Lustrous	0.69			
	Clean	0.66			
Lightness	Light	0.89	3.32	43.91	.90
	Thin	0.88			
	Heavy (R)	0.84			
	Thick (R)	0.82			
Softness	Stiff (R)	0.66	1.97	56.19	.66
	Hard (R)	0.65			
	Fuzzy	0.57			
	Pliable	0.50			
Stretchiness	Stretchy	0.93	1.87	67.86	.91
	Elastic	0.92			

Note. (R): Transformation of variable.

용어를 대상으로 요인분석한 결과, 평활감, 경량감, 유연감, 신축감의 4개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총 설명력은 67.86%로 나타나서 춘추용 캐주얼 셔츠의 주관적 감각을 비교적 잘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다(Table 2).

첫 번째로 추출된 요인은 매끄럽다, 부드럽다, 섬세하다 등 형용사로 구성되어 '평활감'으로 명명하였다. 고유값은 3.71이었고 전체분산의 23.19%를 설명하였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인 부하량이 가장 크게 나타나서 춘추용 캐주얼 셔츠 소재에서 평활감이 중요시됨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요인은 가볍다, 얇다 등 형용사로 구성되어 '경량감'으로 명명하였다(고유값 3.32, 분산 20.72%). 요인 3은 뻣뻣하지 않다, 유연하다 등 형용사로 구성되어 '유연감'으로 명명하였다. 고유값 1.97, 전체분산의 12.28%를 설명하였다. 요인 4는 신축성 있다, 탄력성 있다는 형용사로 구성되어 '신축감'으로 명명하였다. 고유값 1.87, 전체분산의 11.67%를 설명하였다.

#### 4.1.2. 국적에 따른 주관적 감각 차이

한국인 여대생과 중국인 여대생이 평가한 캐주얼 셔츠 소재의 주관적 감각 요인은 국적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셔츠 소재 7종에 대해 요인점수를 사용하여 각각 *t*-test로 분석하였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캐주얼 셔츠 7종 소재별 주관적 감각 요인은 국적에 따라 경량감, 신축감에서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경량감을 살펴보면, C100 소재와 P50C45S5

소재에서 국적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신축감에서 P50M50 소재와 P100 소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한국인 여대생은 중국인 여대생 보다 C100 소재를 더 가볍다고 평가하였으며( $t=1.98, p<.05$ ), 중국인 여대생은 P50C45S5 소재를 좀 더 가볍다고 평가하였다( $t=1.97, p<.05$ ). 한국인 여대생은 중국인 여대생 보다 P50M50 소재와 P100 소재를 좀 더 신축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t=2.17, p<.05, t=2.14, p<.05$ ).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평가자의 국적에 따라 캐주얼 셔츠 소재의 주관적 감각 요인은 경량감과 신축감에서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캐주얼 셔츠 소재의 평활감과 유연감에 대한 평가는 국적에 따른 차이가 없어, 한국인 여대생과 중국인 여대생의 평가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전통 견직물의 주관적 촉감을 평가한 연구에서 매끄러움, 성금, 까실거림, 두꺼움에 대해서는 한국 대학생과 미국 대학생의 평가가 유사하였고, 시원함과 유연함에 대한 평가는 국적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는 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Yi & Cho, 2005), 의류용 직물의 주관적 촉감을 한국 대학생과 미국 대학생이 평가한 연구에서 딱딱함과 매끄러움에 대한 평가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고, 한국 대학생은 미국 대학생보다 성금과 까실거림은 낮게, 시원함은 높게 평가하여 국적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한 결과(Cho et al., 2000)와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Table 3. Subjective sensation of the fabrics for casual shirts by nationality

Subjective sensation	Nationality	C100	C80P20	C65P35	P50C45S5	P50M50	P100	F100
Smoothness	Korean (n=20)	0.48	0.27	0.64	0.22	0.66	-0.53	-1.42
	Chinese (n=20)	0.07	0.45	0.46	-0.03	0.70	-0.54	-1.45
	<i>t</i> -value	1.59	-0.90	0.64	1.04	-0.18	-0.05	0.17
Lightness	Korean (n=20)	0.55	-0.23	-0.18	-1.27	0.56	-0.06	0.90
	Chinese (n=20)	0.05	-0.29	-0.31	-0.60	0.37	-0.30	0.80
	<i>t</i> -value	1.98*	0.23	0.47	-1.97*	-0.84	0.86	0.49
Softness	Korean (n=20)	0.68	0.13	0.11	0.27	-0.43	-0.88	-0.10
	Chinese (n=20)	0.56	0.05	0.06	0.11	-0.10	-0.46	-0.00
	<i>t</i> -value	0.42	0.29	0.16	0.54	-1.04	-1.30	-0.35
Stretchiness	Korean (n=20)	0.13	-0.29	0.17	1.24	0.08	-0.26	0.16
	Chinese (n=20)	0.02	-0.75	-0.19	0.98	-0.52	-0.67	0.05
	<i>t</i> -value	0.34	1.67	0.79	0.95	2.17*	2.14*	0.36

\**p*<.05.

#### 4.2. 캐주얼 셔츠 소재의 촉감 선호도

한국인 여대생과 중국인 여대생이 평가한 춘추용 캐주얼 셔츠 소재 7종에 대해 각각 촉감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여기서 촉감 선호도는 7점의 미미분 척도(-3~3)의 선호한다와 마음에 든다의 2문항의 평균값으로 하였다.

먼저 셔츠 소재의 촉감을 선호하는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인 여대생은 P50C45S5 소재(M=1.35), C100 소재(M=1.30), C65P35 소재(M=0.95), C80P20 소재(M=0.80), P50M50 소재(M=0.57)의 순으로 선호하였으나, P100 소재(M=-0.45)는 선호하지 않았다. 반면, 중국인 여대생은 C100 소재(M=0.65), P50C45S5 소재(M=0.42), P50M50 소재(M=0.40), C65P35 소재(M=0.37)의 순으로 선호하였으나, C80P20 소재(M=-0.73)와 P100 소재(M=-1.00)와 F100 소재(M=-1.03)는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Table 4. Preferences of the fabrics for casual shirts by nationality

Nationality	C100	C80P20	C65P35	P50C45S5	P50M50	P100	F100
Korean (n=20)	1.30	0.80	0.95	1.35	0.57	-0.45	0.12
Chinese (n=20)	0.65	-0.73	0.37	0.42	0.40	-1.00	-1.03
<i>t</i> -value	1.72	4.01***	1.62	2.35*	0.37	1.30	2.40*

\**p*<.05, \*\*\**p*<.001.

캐주얼 셔츠 소재를 선호하는 순서는 평가자의 국적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춘추용 캐주얼 셔츠 소재 각각에 대해 평가자의 국적에 따른 촉감 선호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4). C100 소재, C65P35 소재 및 P50M50 소재에 대한 촉감 선호도는 국적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소재이었으며, P100 소재는 공통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소재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C80P20 소재, P50C45S5 소재, F100 소재에 대한 촉감 선호도는 국적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인 여대생은 C80P20 소재와 F100 소재의 촉감을 선호하였으나, 중국인 여대생은 선호하지 않았으며, 한국인 여대생은 중국인 여대생보다 P50C45S5 소재의 촉감을 더 선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캐주얼 셔츠 소재의 촉감에 대한 한국인 여대생과 중국인 여대생이 선호하는 순서와 선호하는 정도는 차이를 보여, 평가자의 국적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C100 소재, C65P35 소재 및 P50M50 소재는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소재이었으나, 한국인 여대생은 중국인 여대생에 비해 C80P20 소재, P50C45S5 소재, F100 소재를 더 선호하였다. 그런데 C80P20 소재와 F100 소재에 대한 주관적 감각은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평가자의 국적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촉감 선호도에서는 차이가 크게 나타난 점은 특이할 만하다.

Table 5. Effect of subjective sensation on tactile preferences of the fabrics for casual shirts by nationality

Nationality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beta$	<i>t</i>	<i>F</i>	<i>R</i> <sup>2</sup> (Adj. <i>R</i> <sup>2</sup> )
Korean	Tactile preference	(Constant)	0.65		7.30***	33.11 ***	0.32 (0.31)
		Smoothness	0.57	0.44	6.28***		
		Softness	0.46	0.36	5.15***		
Chinese	Tactile preference	(Constant)	-0.05		-0.49	38.34 ***	0.45 (0.44)
		Smoothness	0.73	0.47	7.49***		
		Softness	0.65	0.42	6.75***		
		Stretchiness	0.42	0.24	3.88***		

\*\*\**p*<.001.

#### 4.3. 캐주얼 셔츠 소재의 주관적 감각 요인이 촉감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 여대생과 중국인 여대생이 평가한 캐주얼 셔츠 소재에 대한 주관적 감각 요인이 촉감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촉감 선호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주관적 감각 요인점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캐주얼 셔츠 소재의 주관적 감각 요인이 소재의 촉감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은 국적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한국인 여대생의 경우, 캐주얼 셔츠 소재의 평활감( $\beta=0.44$ )과 유연감( $\beta=0.36$ )이 촉감 선호도에 긍정적인 영향( $F=33.1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한국인 여대생은 춘추용 캐주얼 셔츠 소재의 평활감과 유연감이 촉감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캐주얼 셔츠 소재가 평활하고 유연할수록 촉감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중국인 여대생은 캐주얼 셔츠 소재의 평활감( $\beta=0.47$ ), 유연감( $\beta=0.42$ ), 신축감( $\beta=0.24$ )이 촉감 선호도에 긍정적인 영향( $F=38.34$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소재가 평활하고 유연하며 신축성이 있을수록 촉감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춘추용 캐주얼 셔츠 소재의 주관적 감각 요인이 촉감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은 평가자의 국적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한국인 여자 대학생(한국인 여대생)과 중국인 여자 대학생(중국인 여대생)이 평가한 흰색 춘추용 캐주얼 셔츠 소재의

주관적 감각 및 촉감 선호도는 평가자의 국적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춘추용 캐주얼 셔츠 소재의 주관적 감각은 평활감, 경량감, 유연감, 신축감의 4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춘추용 캐주얼 셔츠 소재 각각에 대한 촉감 선호도는 평가자의 국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C100 소재는 한국인 여대생이 중국인 여대생 보다 더 가볍다고 평가하였고, P50M50 소재와 P100 소재는 더 신축성이 있다고 평가하였으나, P50C45S5 소재는 중국인 여대생이 한국인 여대생 보다 더 가볍다고 평가하였다.

셋째, 춘추용 캐주얼 셔츠 소재 각각에 대한 촉감 선호도는 평가자의 국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한국인 여대생은 중국인 여대생에 비해 C80P20 소재, P50C45S5 소재, F100 소재를 더 선호하였다.

넷째, 춘추용 캐주얼 셔츠 소재의 주관적 감각 요인이 촉감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은 평가자의 국적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한국인 여대생의 경우, 캐주얼 셔츠 소재의 촉감 선호도는 평활감과 유연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중국인 여대생의 경우, 평활감, 유연감, 신축감이 촉감 선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한국인 여대생과 중국인 여대생 모두 면 소재, 폴리에스터/면/스판덱스 혼방 소재를 선호하고 있으므로, 이들 소재를 중심으로 캐주얼 셔츠 소재기획을 하되, 한국인 여대생을 위해서는 면/폴리에스터 혼방소재, 중국인 여대생을 위해서는 폴리에스터/모달 혼방소재를 추가적으로 활용한다면 선호하는 소재 감성을 한층 더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여대생 20명과 중국인 여대생 20명을 대상으로 춘추용 흰색 캐주얼 셔츠 소재 7종에 대해서 주관적 감각과 촉감 선호도를 평가하여 평가자의 국적에 따른 차이에 초점을 두



어 분석한 것이므로 본 연구 결과의 확대 해석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남학생을 포함하여 평가자를 더욱 확대시키고, 셔츠 소재의 주관적 감각 뿐 아니라 색채와 무늬를 포함한 종합적인 선호도를 조사하여 복합감성차원에서의 평가자의 국적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 REFERENCES

- Ahn, C. S., Lee, S. H., Yang Y., Lim, S. J., Lennon, S. J., & Parker, S. H. (2001). A comparative research on Korean and American consumer's preference on selected Korean and American textiles for women's formal wea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5(2), 217-227. I410-ECN-0102-2009-590-005875451
- Bae, H. J., & Kim, E. A. (2003). Texture image and preference of men's wool/wool blend suit fabric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Clothing and Textiles*, 27(11), 1318-1329. I410-ECN-0102-2009-590-003200314
- Chen, X., & Kim, C. S. (2017a). Analysis of effect of perceived Korean fashion brand traits by Sina Weibo users and their attitudes towards Korean fashion brands on the purchase intention in Chinese sns(Sina Weibo) activities. *Journal of Basic Design & Art*, 18(2), 539-552. I410-ECN-0102-2018-600-000366928
- Chen, X., & Kim, C. S. (2017b). Analyzing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China chic" formative element in global fashion brand: focus on the analysis of fashion collection in from 2011 to 2016. *Journal of Basic Design & Art*, 18(5), 497-514. I410-ECN-0102-2018-600-000654403
- Cho, G. S., Yi, E. J., & Cho, J. Y. (2000). Effect of fabric sound and touch on human subjective sensation: Crosscultural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U.S.A. *Korean Journal of the Science of Emotion & Sensibility*, 3(1), 41-52. I410-ECN-0102-2009-400-000793091
- Choi, J. M., & Kweon, S. A. (2006). Assessment of subjective sensation and purchasing preferences for casual shirt fabric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5(3), 397-404. I410-ECN-0102-2009-590-000448078
- Choi, J. M., & Kim, S. H. (2013). Cross-cultural study of color sensation and sensibility for Korean traditional fabrics with natural indigo dyeing. *Fibers and Polymers*, 14(1), 138-145. DOI: 10.1007/s12221-013-0138-z
- Cui, X. M., & Choi, K. H. (2011). The effect of shopping tourists' emotional consumption tendencies on luxury brand attachment and loyalty: A moderating effect of brand benefit. *The Journal of Business and Economics*, 27(2), 197-219. DOI: 10.22793/INDINN.2011.27.2.007
- Enkhmaa, T., & Lim, J. Y. (2014). Comparison of preference for color and fashion image between Korean and Mongolian female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red and blu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20(4), 367-381. I410-ECN-0102-2015-600-002162891
- Jeong, S. J., & Choi, S. K. (2011). The analysis of men's wear color preference between Korean and Chinese college women: Focusing on tone in tone coloration. *Journal of the Korea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13(4), 69-77.
- Kang, N. N. (2009). Fashion design applying the fusion of sex: Based on formal shirts desig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hwa Womans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www.riss.kr/>
- Kim, H. S., No, Y. J., Choi, J. Y., & Kim, Y. W. (2012). Assessment of subjective sensation and purchasing preferences for summer casual shirts fabrics. In *Proceeding 2012 Summer Conference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145-146.
- Kim, H. A., & Ryu, H. S. (2012). Textures and sensible images on structural properties of washable wool and normal wool knit fabrics (Part II): Focus on preferen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5(5), 501-511. DOI: 10.5850/JKSCT.2012.36.5.501
- Kim, H. S., & Na, M. H. (2002a). A research on the preference to textiles for shirts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1(3), 263-271. I410-ECN-0102-2009-590-003868054
- Kim, H. S., & Na, M. H. (2002b). A research on the preference to textiles for slacks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1(4), 381-389. I410-ECN-0102-2009-590-003872323
- Kim, H. S., & Na, M. H. (2005). A study on the effect of hand and sensibility image on the preference to

- clothing material: Focused on shir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9(2), 210-219. I410-ECN-0102-2009-590-001787523
- Kim, H. S., & Na, M. H. (2011). Evaluation of the texture image and preference according to wool fiber blending ratios and the characteristics of men's suit fabric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0(2), 413-426. DOI: 10.5934/KJHE.2011.20.2.413
- Kim, J. K., & Park, J. H. (2015). *Textile Fabrication*. Seoul: Gyomoonsa.
- Kim, M. J. J. (2001). A study on the human sensibility measurement technology of texture coordination. *Journal of the Korea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3(1), 47-55.
- Kim, Y. W., & Choi, J. M. (2011). Effect of characteristics and texture of sight and touch on the tactile preferences for the black fabrics.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9(3), 556-564. DOI: 10.29049/rjcc.2011.19.3.556
- Kim, Y. W., Meng, Y., & Choi, J. M. (2017). Effect of color properties and subjective sensation on the preference for cotton denim fabrics. *Korean Journal of the Science of Emotion & Sensibility*, 20(4), 55-64. DOI: 10.14695/KJSOS.2017.20.4.55
- Ko, S. G., Yoo, S. J., & Kim, E. A. (2003). DB for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images and sensibilities of fabrics: Effect of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n the texture images of woolen fabric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7(5), 533-544. I410-ECN-0102-2009-590-003206932
- Lee, S. Y. (2013). Physiological reaction to tactile sensation of silk fabrics used for Korean traditional Hanbok. *Journal of Korea Design Forum*, 40(1), 39-48. DOI: 10.21326/ksdt.2013..40.004
- Li, Y. F., & Park, M. (2015). Analysis of design preference to Korean and Chinese casual style by Chinese female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17(3), 73-84. G704-001445.2015.17.3.001
- Lim, G. J., & Lee, M. S. (2012). Hand evaluation and favorable image of knit fabrics: A focus on intarsia and color Jacquar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6(8), 828-836. DOI: 10.5850/JKSCT.2012.36.8.828
- Na, M. H., Kim, H. S., & Choi, J. M. (2013). Sensory images and preferences of linen and ramie fabrics for summer shir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51(2), 167-171. DOI: 10.6115/khea.2013.51.2.161
- Nam, H. K., Son, H. J., & Lee, Y. R. (2015). Effect of SPA brand consumers' emotional consumption value orientation and assessment of marketing mix attributes on brand loyal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5(4), 45-60. DOI: 10.7233/jksc.2015.65.4.045
- Ou, L. C., & Ronnier, M. (2004). A study of colour emotion and colour preference (Part I): Colour emotions for single colours. *Color Research and Application*, 29(3), 232-240. DOI: 10.1002/col.20010
- Pan H. Y., & Choi, J. M. (2012). Comparison of visual sensibility for red shirts between Korean and Chinese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the Science of Emotion & Sensibility*, 15(1), 57-64. I410-ECN-0102-2012-530-003217598
- Rhu, D. H., & Cho, J. H. (2002). Evaluation of subjective handle in waterproof and water vapor permeable coated fabrics. *Journal of Living Science Research*, 28(1), 147-158.
- Roh, E. K., & Rhu, H. S. (2005). Visual texture image and preference of men's suit fabrics. *Korean Journal of the Science of Emotion & Sensibility*, 8(2), 117-128. I410-ECN-0102-2009-400-000791668
- Seo, J. A. (2014). A study on sensibility images of visual tactility of black leath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Ehwa Womans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www.riss.kr/>
- Yi, E. J., & Cho, G. S. (2005). Cross-cultural comparison of touch sensation for Korean traditional silk fabrics. *Korean Journal of the Science of Emotion & Sensibility*, 8(4), 393-402. I410-ECN-0102-2009-400-000791426

원고접수: 2020.07.31

수정접수: 2021.01.14

게재확정: 2021.03.08.